

# 심각한 취업난,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도움 된다

세계 경제침체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실업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태백, 사오정 등은 이제 옛말이 되었으며, 요즘은 삼초랭, 삼팔선, 이퇴백 등의 신조어가 우리의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처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취업난에 2003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글\_ 편집부

##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무엇인가?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시켜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 또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해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이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유형별로 나누면 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 모델 발굴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연계형은 비영리단체-민간기업-지역사회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원(현금, 현물,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이다. 지역연계형은 지자체-대학-연구소-공공기관-다른 비영리단체 등 민간기업 이외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이다. 그리고 모델발굴형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하는 초창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업 지역사회 등과의 연계나 수익창출구조는 다소 미흡하나, 향후 기업 또는 지역연계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모델이다.

##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구조 변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03년 OECD국가의 평균 사회서비스 취업비중이

21.7%나 우리는 12.6%('06년)에 불과하다. 이는 OECD국가 중 터키를 제외하고는 최저수준의 수치이다. 각종 조사에 의하면 약 90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3년 노동부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2003년 노동부 시범사업으로 도입 후 예산규모 및 지원인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7년에는 11개 부처에서 총 39개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10개 부처에서 1조 5,729억 원을 투입하여 22만 8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수익창출을 통해 자립을 지향하는 사업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개발, 문화, 환경 등 전략사업 분야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